

7 광주일보  
제17631호 2006년 12월 19일 화요일

### 광주 곳곳 '얼굴없는 천사' 익명의 기부로 불우이웃 도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실천하는 '얼굴없는 천사'들이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 육아원'에는 한 익명의 독자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생일 케이크 5개를 보내고 있다. 이날은 매달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이 '공동 생일파티'를 하는 날. 아이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특별한 생일 축하를 받고 있다.

서구청에는 40대 초반의 독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10월부터 매월 1천만원씩 기탁하고 있다. 이 독자는 지난해 10월, 4명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400만원으로, 지난 10월에는 1천만원으로 기부금을 늘렸다. 서구청은 이 돈으로 모자 가족·소년소녀가장 등 140명에게 2만~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청은 잇닿을 때 한번씩 들려 지갑 속 돈을 털어놓고 가는 50대 남성이 있다. 이들을 받기까지 거부한 이 남성은 지난해 300만원을 처음으로 맡겼고, 올해는 두 차례 구청에 들러 65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초에는 "일보러 구청에 들렀다"며 지갑에 있던 돈 150만원을 모두 털어놓고 갔다.

북구 금곡동 '별밭 공동체'에는 최근 암 선고를 받은 할머니 한 분이 "죽기 전 100만원을 기증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처음 30만원을 맡긴 할머니는 나머지 70만원을 보낸 후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일에는 전남제신청에 익명의 독자가 김 900상자(63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 김은 북광주·해남·장성·화순·순천지역의 불우이웃에 전달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 사회복지시설 광주 '일막원'의 11월 생활비 대차대조표

# 최저생계비 '절반' 생활... 쌀사기도 '빠듯'

### 원생 65명에 한 달 예산 1,512만원

### 올 겨울 방한복 준비는 엄두도 못내

사회복지시설들이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늘었다지만, 의식주 이외의 혜택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기란 여전히 부담스럽다.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생 65명이 생활하는 광주시 동구 자선동 '일막원'의 11월 수입과 지출을 분석했다.

'일막원'의 수입원은 정부 지원 관리운영비, 양곡 및 생계비, 참고서 구입비와 일반인들의 후원금으로 나뉜다. 매월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관리운영비는 1인당 9만8천78원(3세 이상)으로, 지난 11월엔 65명분인 637만 5천원이었다. 

양곡 및 생계비	701만6천원
관리운영비	390만원
생계비	225만4천원
피복비	44만1천원
양곡비	22만8천원
양곡비	22만8천원
양곡비	22만8천원
양곡비	22만8천원
양곡비	22만8천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06년 1인당 월 최저생계비(41만8천309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절반 수준인 55.6%, 4인 기준(117만422원)으로 볼 때도 79.5% 수준에 불과하다. 연말인 12월에도 절반 다치지 않다. 그렇다면 지출은 얼마였을까? 우선 먹는 데 550만원이 들었다. 쌀값 120만원, 부식비 400만원, 주방 운영비 30만원 등이다. 아이들 옷값으로 300만원이

### '일막원'의 11월 수입 및 지출

내역	수입	지출
관리운영비	637만5천원	
양곡비 교부	244만7천원	
생계비 교부	456만9천원	
참고서 구입비	143만원	
성금추정	30만원	
식비		550만원
피복비		300만원
난방비		70만원
방과 후 활동비 (학원비등)		120만원
수돗세·전기료		150만원
계	1천512만1천원	1천190만원

\*소액비용 제외

와 청바지 등을 구입해줘야 하는데, 큰 돈이 들기 때문이다. 원생들에게 방한복을 사주려면 1천여만원이 필요하다. '일막원' 강남수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먹고 입고 잠을 재우는 것은 어렵사리 꾸려가지만, 의식주 이외의 혜택을 제공하기엔 살림이 너무 빠듯해 주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현기자 jhim@kwangju.co.kr



### 인애동산 천막농성 강제 철거 '몸싸움'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인애동산 내에 노인요양원을 건립 중인 D건설 측이 18일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자,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이 돌을 던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다. D건설은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에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이날 본격적으로 농성장 철거를 단행했다. /내무기자 mjna@kwangju.co.kr

### 인화학교 대책위 "화해 권고안 반대"

광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주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화해 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당초 해임대상 임원 6명 중 현재 남아 있는 2명만을 면직하라는 법원의 권고는 이미 사직한 임원 4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 공익적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까지 법원 측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권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 6명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에 반발,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 사이비 기자 7명 적발

### 광주지검, 고발기사로 협박·갈취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주간지·특수지·지역지 등 사이비기자 7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신문 기자 임모(37)씨는 지난 3월 중순께 환경시설이 미흡한 모 업체를 찾아가 2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갈취했다가

구속됐다. H인터넷뉴스 국장 박모(32)씨는 지난 8월 도로공사 현장의 설계와 부실 공사를 취재한 후 이를 "기사화하겠다"며 현장소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주간신문 취재부장 장모(42)씨는 지난 2004년 8월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10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월급도 받지 않고 근무하면서 대신 공장·건설 현장의 문제점 등 약점을 고발 또는 기사로 쓰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7005)



평등도시의 중심축권을 우리는 3.636 회대안지!  
정말! 3.636 회대안지!  
수원신도시 파오래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즉시반대처리합니다! 규탄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출판협회

기출 중학생 부의금 절도 CCTV 찍혀  
O--가출 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부의금(賜金)을 훔친 중학교 3년생이 영안실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들킨다.  
O--1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5)군은 지난 4일 새벽 5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H병원 지하 장례식장에서 유족 이모(48)씨가 잠이 든 사이에 가방에 담겨있던 부의금 12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훔쳤다는 것.  
O--이군은 12월 초 "공부가 하기 싫다"며 집을 나간 뒤 비디오방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용돈이 떨어지자 유족들이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든 새벽녘에 장례식장의 부의함을 털었다고.

황금어선  
1589-7677  
0511-7600

상해장기코스 779,000  
바닐라/라산한 829,000  
완주도 329,000  
제주도 159,000

광주 → 해상도 천년기 휴향  
2006.12.21 - 2007.2.11

항목	가격
상해장기코스	779,000
바닐라/라산한	829,000
완주도	329,000
제주도	159,000